

“올해도 뜨거웠다”… 사랑의 온도탑 ‘활활’



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희망2026나눔캠페인’ 폐막식에서 광주사랑의열매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전남 ‘희망 2026 나눔캠페인’ 폐막

광주 59억·전남 115억원… 목표액 초과 달성
지역민 나눔·온정 증명… “생계·주거비 지원”

광주·전남 소외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이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2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은 총 59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람의 온도탑은 목표액(51억2000만원)을 7억9800만원 초과한 115.6도를 기록했다. 이로써 온도탑 수는주는 2020년(102도), 2021년(100도), 2022년(135도), 2024년(110도), 2025년(116.1도)에 이어 6년 연속 100도를 넘겼다. 올해는 개인 기부가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보다 2억9700만원 증가한 28억6900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법인 기부는 전년 대비 3억3800만원 줄어든 30억3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캠페인 기간 1억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는 신규 회원 6명(정병준(유) 한양산업 대표, 박문수 샌도리 대표, 이종희 ㈜에코

그룹 회장, 김명준 효성요양병원 이사장, 하상구 ㈜상일하이텍 대표, 이영민 화순고려병원)이 가입해 나눔 확산에 힘을 보탤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개인 기부도 진행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기부, 학생들의 학교 축제 수익금 기부, 지역 자영업자의 ‘착한가게’ 참여, 직장인 급여 끝낸 나눔 등 생활 속 기부가 이어졌다. 법인 기부도 꾸준히 이어졌다. 1억원 이상 법인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에는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도경건설 등 3곳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또 ‘나눔 기업 릴레이 기부 챌린지’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232곳의 나눔이 로가 탄생했다. 구제길 광주사랑의열매 회장은 “쉽지 않은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광주 시민들의 따뜻한 참여가 캠페인을 완주하게 했다”며 “모아진 성금은 지역 복지 현

장과 취약계층을 위해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에서도 목표를 웃도는 성과가 나왔다. 전남 사랑의 온도탑은 115억원을 모금해 목표 대비 101%를 달성했다. 세부적으로 개인 기부는 53억원(46.1%), 법인 기부는 62억원(53.9%)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남 사랑의 온도탑은 2019년(101도), 2020년(100도), 2021년(131도), 2022년(118도), 2023년(106도), 2024년(118도), 2025년(142도)에 이어 7년 연속 100도를 넘겼다. 당초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역민의 지속적인 참여로 최종 목표액 113억9000만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다. 허영호 전남사랑의열매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분 한 분의 나눔이 모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며 “기부금은 지역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페인 기간 모인 성금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안전복지 돌봄 지원사업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이주배경청소년 성장기회 격차 해소 사업 지원 △복지 현안 지원 사업 △위기기가구 긴급지원 사업 등으로 사용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7:30	달달	18:34
☁️ 맑음	18:03	달달	08:18



광주	☀️	-3~7
목포	☀️	-2~5
여수	☀️	-3~8
순천	☀️	-3~8
구례	☀️	-5~8
광주	☀️	-3~7
전남	☀️	-2~8
전남	☀️	2~7
고흥	☀️	-5~9
진도	☀️	-1~6

목포	밀물(고)	02:52 / 15:39
여수	밀물(저)	08:14 / 20:48
목포	밀물(고)	10:22 / 22:31
여수	밀물(저)	03:51 / 16:22

초대 광주회생법원장에 김성주 부장판사

장인·아내 외조부까지 법원장 이력…법조계 ‘용서 3대’

오는 3월에 신설되는 광주회생법원의 초대 법원장에 임명된 김성주(59·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이력이 주목되고 있다. 김 신임 법원장이 장인과 아내의 외조부까지 모두 법원장을 지낸 ‘용서(翁婿) 3대 법원장’이라는 이례적인 이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주 신임 광주회생법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석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광주지법과 순천지법, 광주고법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법원장의 장인은 제25대 광주지방법원장(2000년 7월~2002년 2월)을 지낸 전도영 전 법원장이다. 그는 사법고시 11회 출신으로, 오랜 기간 광주에서 법관 생활했다. 여기에 한 세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 전 법원장의 장인이자 김 신임 법원장 아내의 외조부인 고(故) 김용근 전 법원



장도 제8대 광주지법 원장(1973년 4월~1975년 7월)을 지냈다. 장인과 사위, 외손녀의 사위까지 3대에 걸쳐 모두 법원장을 역임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신임 법원장은 현재 법원장 연수를 받고 있으며, 오는 3월 1일 광주회생법원 초대 법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김 신임 법원장은 “초대 회생법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영 위기에 놓인 지역 기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법원이 지역 경제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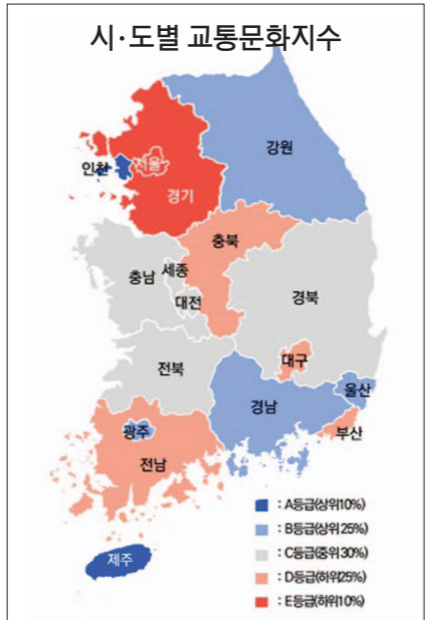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전남 교통문화지수 큰 폭 개선됐다

보성·광주 복구, 지표 점수 상승 ‘전국 1·2위’

광주·전남 지역 교통안전 문화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발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84.48점을 기록해 전년(81.39점)보다 3.09점 상승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개선 폭이다. 전국 순위도 전년 9위에서 3위로 6계단이 뛰어올랐다. 보행자 보호와 교통법규 준수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점수가 고르게 상승한 점이 순위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도 두드러진 성과가 나왔다. 전남 보성군과 광주 북구는 ‘교통문화 개선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전국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했다. 보성군은 운전행태 개선 부문에서 정지선 준수율과 신호 준수율, 방항지시등 사용률이 크게 향상되며 전국 순위가 47위

에서 4위로 급상승했다. 교통안전 부문에서도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 감소와 사고 발생 정도 개선으로 순위가 51위에서 27위로 올랐다. 특히 이륜차 안전도 착용률이 64.41%에서 95.00%로 30.59%p 급등한 것이 종합 점수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전년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되며 전국에서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평가 받았다. 광주 북구 역시 전년 D등급에서 A등급으로 3단계 상승했다. 안전띠 착용률이 17.13%p 높아졌고, 보행 중 스마트폰기미사용 준수율도 16.08%p 개선되는 등 생활 밀착형 교통안전 정책 성과가 반영됐다. 교통문화지수는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를 종합해 100점 만점으로 산출되며, 지역별 교



통안전 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한편 군 단위 교통안전 행정 노력도 평가에서는 영광군이 10.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자치구 단위에서는 광주 서구가 10.90점으로 선두에 올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중앙근린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포럼

“녹지 네트워크 확충·시민 참여 전략 필요”

안승홍 부회장, 역사·생태자원 콘텐츠 확충 주장
거버넌스 체계 구축·재원 다각화 등 의견도 제시

광주 중앙근린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녹지 네트워크 확충과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시와 서구가 최근 서구문화센터에서 개최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포럼’에서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은 ‘국가도시공원 조성과 운영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공원 프로그램 개발, 시민 참여 확대,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수석부회장은 “광주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녹지 확보는 물론,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콘텐츠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공원·녹지 총량제 도입, 녹지축과 물순환 체계 유지 등 환경 보전을 기본으로 에너지 절약형 건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외문화광장과 체험센터 조성, 시민정원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원 운영 문화를 만들어

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연환경의 가치와 의미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장을 테마로 한 치유형 공간과 건강체험 프로그램은 관광산업 강화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역시 인근 지역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축제와 행사, 야외공연 등지로 이어져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과 도시 가치 상승, 나아가 시민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발제 이후에는 김은일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



광주시와 서구는 최근 서구문화센터에서 광주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추진방향과 과제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종합토론 모습.

됐다. 토론에는 박필순 광주시의원,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주인석 광주시 도시공원과장, 김중순 대구시 공원계획팀장 등이 참여해 국가도시공원 전담조직 구성과 안정적인 운영 역량 확

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뉴욕 센트럴파크는 시와 의회, 시민단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을 통해 공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도시공원 운영을

위해 광주 역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시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금 조성 등 재원 다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광주는 시민사회가 공원 운영에 함께할 준비가 돼 있고, 그동안 관리·운영 경험도 충분히 축적해왔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여건은 이미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이나 자연경관, 역사·문화유산 보존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로, 2016년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지정 사례는 없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무등산국립공원과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과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복원을 선도하는 ‘생태도시 광주’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